

배우실 것 없어요. 누르고, 말씀만 하세요.

탁자 위 태블릿 속 **도란이**가 먼저 말을 걸고, 약 드실 때를 알려 드리고, 자녀분 소식을 **크게, 소리로** 읽어 드려요.



“기계는 어려워서 못 써”

버튼이 크고, 몇 개뿐이에요

무엇을 누르셔도 도란이가 읽어 드려요. 잘못 누르셔도 괜찮아요.

“약을 먹었나 헛갈려”

약 시간에 도란이가 여쭙요

"혈압약 드셨어요?" [먹었어요] 한 번이면 끝이에요.

“혼자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”

[연락해 줘] 한 번이면 자녀분 휴대폰이 울려요

오래 조용하시면 도란이가 먼저 "괜찮으세요?" 여쭙요.

“말할 사람이 없어”

도란이가 말동무가 돼 드려요

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"무릎은 좀 어떠세요?" 여쭙요.

하실 일은 두 가지예요



① 누르기

버튼이 손바닥만 해요. [먹었어요]
[연락해 줘]처럼 글로 쓰여 있어요.

② 말하기

"딸한테 연락해 줘" 하고 말로
하셔도 돼요.

택배로 오면 **전원만** 꽃으세요. 설치하는 저희가, 인터넷이 없어도 돼요.

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려 드려요

독감 예방주사

신분증 들고 가까운 내과·보건소로. 65세
이상 무료

연금 들어오는 날·명절

시계 화면에 띄워 드려요

병원 가시는 날

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

건강검진·폐렴 예방주사

받으실 해, 무료 대상이시면

비·추위·더위

"우산 챙기세요" 한마디

[자녀에게 부탁하기]

"병원 같이 가 줘"도 버튼 하나로

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위급하실 때는 119가 먼저예요. 도란이는 의사가 아니예요.
카메라는 영상통화 받으실 때만 켜져요.

이 종이를 자녀분께 보여 주세요

자녀분 휴대폰 카메라로 오른쪽 네모를 비추면 안내가 열려요. 신청과
준비는 자녀분이 해요.

caremate365.com/story

